

자료제공 : 2023. 11. 1.(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교통공사 차량정비처

차량정비처장

임경삼

6311-9630

차량정비팀장

노번호

6311-9631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4쪽

관련 홈페이지

www.seoulmetro.co.kr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객실 공간 확보하여 혼잡도 완화 기대

- 내년 1월 전동차 내 객실의자 개선...4·7호선 각 1편성 2개 칸 내 의자 제거
- 혼잡률 40%까지 개선, 칸당 12.6 m^2 탑승 공간 확보하여 승객 편의 증진
- 시범사업 점차 확대하여 더욱 쾌적한 지하철 이용 가능토록 지속적인 개선 이뤄나갈 것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지하철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으로 전동차 객실의자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일 공사가 발표한 승강장 혼잡도 개선 계획과 더불어 열차 내 혼잡도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 공사는 승강장 혼잡도 개선 계획 발표 이후, 10월 30일부터 출퇴근 시간대 4호선과 7호선의 열차 운행 횟수를 4호선 오전 4회, 7호선 오전·오후 1회 증회 운행하여 혼잡도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하철 4·7호선 각 1편성에서 2개 칸 내 일반석 의자를 제거하여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개선한다.

객실 내 의자 제거는 호선, 차호, 차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고, 객실 의자 밑 중요 구성품이 적은 호차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4호선과 7호선은 '23년 3분기 기준 최고 혼잡도가 각각 193.4%, 164.2%로 여전히 150%를 초과한다.

연 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22.4분기	105.6%	172.3%	154.8%	185.5%	140.9%	113.8%	160.6%	136.8%
'23.3분기	108.2%	148.6%	144.2%	193.4%	130.9%	111.6%	164.2%	140.0%

- 공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혼잡도 완화와 수송력 향상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객실 의자 제거 시 지하철 혼잡률은 34.1%~40%까지 개선되고, 칸당 12.6㎡ 탑승 공간을 확보하여 승객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 객실의자 개선 시 기대효과

구 분		현 행	(개선) 7인석만 제거 (42명 확보)	
			탑승 인원	혼잡률
정원 (160명)		혼잡률 100%	160명	79.2% (△20.8%)
혼잡 (320명)		혼잡률 200%	320명	158.4% (△41.6%)
효과	4호선	혼잡률 193.4% (310명)	310명	153.4% (△40.0%)
	7호선	혼잡률 164.2% (263명)	263명	130.1% (△34.1%)

-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높은 혼잡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4호선 3개 편성 30칸, 7호선 1개 편성 8칸의 도입을 추진한다. 열차 증차는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 발주 시 통합발주 및 계약변경의 방식으로 추진해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는 출퇴근 시간대 증회 운영을 비롯 주요 역에 혼잡도 안전도우미를 비치하는 등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시범 사업 시행 후 효과성이 입증되면 추후 확대 시행하여 이용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4호선 전동차 객실 의자 개선 전·후 사진 2장. 끝.



▲ 전동차 객실 의자 개선 전



▲ 전동차 객실 의자 개선 후